

연내 코스피 3000 찍을까…李 정부 ‘허니문 랠리’ 기대감

코스피, 이전 9번의 대통령선거 기점
3개월 뒤 4.52%, 6개월 뒤 7.2% ↑

새 정부 초반 코스피 상승률 높고
3~4년차 하락, 5년차에 반등 흐름
증권가 하반기 코스피 3000 예상
경제성장 부진, 美 관세 등 변수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허니문 랠리’가 나타날까.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자주 발생했다.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새로운 정책과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는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좀처럼 잡히지 않는 세계적인 물가상승세와 잦은 경제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6개월 뒤 코스피 7% 올라

4일 메트로경제가 집계한 결과, 1981년 이후 아홉 번의 대통령 선거일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3개월 뒤 평균 4.52% 상승했다. 대선 6개월 뒤 평균 상승률은 7.2%였다. 대선 직전 3개월에는 코스피가 평균 3.0% 하락했는데, 대선 후 흐름으로 반등한 것이다.

대선 후 6개월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기대감에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던 정부는 노태우(48.8%), 전두환(35.4%), 김영삼(15.4%) 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 모두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김대중(-22.2%)·이명박(-6.5%)·윤석열(-9.1%)·박근혜(-5.3%) 정부에서는 대선 후 6개월간 코스피가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이후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명박 정부(-36.6%)와 유럽 재정위기 여진이 남았던 박근혜 정부(-0.9%), 윤석열 정부(-7.3%) 등 3차례를 제외하고 6차례나 코스피가 상승했다. 9차례 대선 이후

1년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16.2%나 됐다.

◆집권 1~2년 차 정부지출 확대 경향

케이프투자증권이 13~18대 대통령 임기별 코스피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임기 1~2년 차에 수익률이 높았고 이후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임기 1년 차 때 23.2% 올랐고, 새 정부가 전열을 갖춰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임기 2년 차에 오히려 26.2%가 가장 컸다.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정부지출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이 14대(김영삼)~19대(문재인)까지 6번의 대선을 분석한 결과, 집권 1~2년 차 정부지출 증가 속도가 전년 대비 각각 5% 안팎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투자 증가율 역시 민간 투자 증가율보다 두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3년 차(-1.7%), 4년 차(-0.8%)에는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다. 차기 정권 기대감이 생기는 5년 차에는 평균 1% 반등으로 돌아섰다.

증권가에서는 이재명정부 첫해 하반기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 범위를 2350~3000포인트로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2400~2900포인트, 키움증권은 2380~2880포인트, 신한투자증권 2400~2850포인트, iM증권 2500~2780포인트 등이다. NH투자증권은 2350~3000포인트까지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코스피 지수 상단 3000포인트를 유지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은 2500~3000선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가 확대됐던 4월에 이미 코스피 저점을 통과했고, 연말까지 상승 추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미국(Non-US) 증시에서 코스피, 특히 신흥 아시아 등은 상대적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화될 수 있고,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및 정책 동력 강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성장 산

업 육성 정책 강화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에 하강 압력이 확대됐으나 하반기 폴리스믹스 속 내수 중심 성장세의 제한적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나간 외국인이 증시에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은 “6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내수 부양책 기대가 강화될 경우 과거 패턴처럼 저평가된 한국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가 기대된다”고 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허니문 랠리 걸림돌

힘난한 대내외 여건을 봤을 때 올해 허니문 랠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어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환율 정책,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도 변수다. 이용찬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에는 내수는 정책 부양이 기대되나 수출은 미국 소비 둔화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증시 및 경기부양 정책과 미국 관세 정책 등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신영증권 측은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경계를 늦출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IT(특히 반도체)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하반기 경기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AI·지역화폐 등 정책 테마주 ‘시동’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부양’ 초점
증권주 포함 고배당 종목 수혜기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도 부각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경제 기조는 증시 상승 기대를 자극하며 빠르게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증권·AI·신재생에너지·지역화폐 등 정책 테마주는 대선 기간 선반영된 기대에 다시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자본시장 육성을 강조하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엔 세제 혜택을, 낮은 기업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증

권주를 포함한 고배당 종목군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금융사 등 저PBR 종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증가 기준 부국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22.67% 급등한 4만2200원, 신영증권은 12.62% 오른 11만7800원에 거래됐다. 두 회사 모두 자사주 비중이 높아 향후 소각 압박이 강화될 시 주가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 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갖는 후유증을 반면교사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상대적 수혜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법 개정 추진은 코리

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에이션 개선 기대를 높이며 지주사·금융주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육성 분야인 AI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솔트룩스·코난테크놀로지·루닛·네이버·카카오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수혜주로 부각된다.

신재생에너지도RE100및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정책 기조에 힘입어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SK오션플랜트 등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또한 지역화폐 국비 확대 공약에 따라 코나아이, 쿠론, 웹캐시 등 관련주는 정책 가시화 여부에 따라 주가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코나아이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중·소형주-흥행, 대형주-철회 ‘IPO 양극화’

중·소형주, 상장 첫날 ‘파블’ 등
한 달간 9개 종목 수익률 102%

DN솔루션즈·롯데글로벌로지스
‘대어급’ IPO기업, 잇단 상장철회

기업공개(IPO) 시장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천억 원대 공모를 추진한 대형주는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고 있는 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중·소형주는 상장 후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이는 등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한 중·소형주는 상장 첫날 ‘파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한 달간 상장한 9개 종목(스팩 제외)의 상장일 평균 수익률은 102.10%에 달했으며, 공모가를 밑돈 종목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지난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키스트론으로,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대비 168.33% 급등했다. 이어 원일티엔아이(165.93%), 나우로보틱스(126.47%), 이문온시아(108.33%), 바이오비주(101.98%) 등이 뒤를 이었다. 인투셀(95.29%), 달바글로벌(66.06%), 오가노이드사이언스(52.38%), 로킷헬스케어(34.09%) 역시 모두 공모가를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다.

단기 반짝 상승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상장 이후에도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키스트론을 제외한 8개 종목의 상장 이후 일주



ChatGPT가 생성한 IPO 기업 주가상승 이미지.

일간 평균 수익률은 134.67%로 집계됐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형주는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DN솔루션즈와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어’급 IPO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을 철회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 부양이 가능해 수급만 받쳐주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쉽다”며 “최근에는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아도 수급에 힘입어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을 대형주가 그대로 적용하려 했지만,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기 쉬운 구조 탓에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어급 IPO가 시장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6%로 ‘상승’

금감원, 273곳 공시 2만8969건 점검
국민연금 99.6% 등 연기금 보다 낮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이 91.6%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반대의견 비율은 6%대로 낮고,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많아 수탁자 책임이 미흡

하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자산운용사 273곳이 공시한 2만8969건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82.9%, 반대는 6.8%, 중립은 1.9%, 불행사는 8.4%였다.

이는 2023년 행사율 79.6%, 반대율

5.2%에 비해 개선된 수치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행사율 99.6%, 반대율 20.8%)이나 공무원연금(97.8%, 8.9%)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한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 중 72개사(26.7%)는 전체 안건의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동일한 문구를 반복해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